

01

1 변호사 1 소셜벤처 매칭사업 시행

지평과 두루는 소셜벤처의 회사 운영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한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변호사의 프로보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평 변호사와 소셜벤처를 매칭하는 '1 변호사 1 소셜벤처 매칭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02

과거사 사건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에 대한 위헌 결정

지평은 군사 정권의 고문·조작 등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상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송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상을 받지 못했던 일부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은 재심 청구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03

더엘(the L)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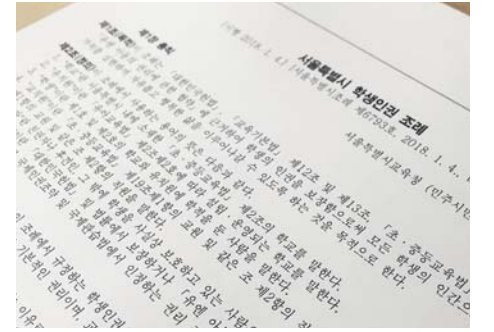
지평과 두루는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인강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의 사건을 맡아 인권침해와 비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단의 정상화를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아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서울판 도가니'라는 오명에서 벗어난 인강원은 현재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모범적인 시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04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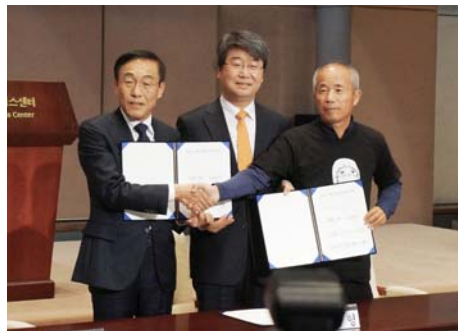
지평과 두루는 5월부터 6개월간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주로, 정부의 장애인권리협약 및 최종준해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위 평가지표를 기초로 이행현황을 평가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에는 협약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위 지표에 기초한 민간 평가조사 결과, 쟁점별 이행현황 조사 결과, 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05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무효확인소송 승소

지평과 두루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에서 피고 서울교육청을 대리하여 1심에서 각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례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6

삼성전자 사업장 백혈병 발병 관련 문제 해결

지평 김지형 대표변호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장을 맡아 11년 만에 문제 해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는 노동 현장에서 부딪히는 직업병 문제에 대해 큰 획을 긋는 사건으로, 좀처럼 성사되지 않을 것 같았던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07

난민 조력 확대 및 네트워크 참여

지평과 두루는 2017년 난민인권센터와 맺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2018년에도 난민에 대한 조력을 이어 나갔습니다. 특히 두루는 외국인보호소 등에 구금되어 있는 난민을 지원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난민네트워크, 출입국항 TF, 혐오대응 TF 등 난민과 관련한 다양한 네트워크에도 참여하여 난민 조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08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 승소

지평은 양심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강용주 님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평은 보안관찰 갱신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12월 17일 강용주 님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을 내렸고, 강용주 님은 석방 이후 19년 만에 보안관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09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업무 영역의 확대

지평과 두루는 2018년에도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업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평과 두루가 2018년에 새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SOPOONG 등입니다. 지평과 두루는 위 기관들에 대하여 법률상담, 법률교육,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

두루 공익변호사 8명으로 증원

두루는 2018년에 3명의 변호사를 추가 채용하면서 8명의 상근변호사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4년 설립 이래 매년 1명 이상의 변호사를 꾸준히 채용해 온 두루는 유례 없는 급속한 성장을 기록하며 로펌 기반 공익변호사 단체 중 가장 많은 수의 공익변호사가 상근하고 있습니다.